

클릭 한번에 종소세 무료 환급...국세청 ‘원클릭’ 개통

311만명 대상 5년치 환급금 조회...개인정보 유출 위험없고 정확도 높아
환급 대상자에 알림톡 개별 안내...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어

국세청이 무료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원클릭’을 개통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31일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 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 ‘삼점삼’ 등과 달리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간서비스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고, 정확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며,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28만명(중복 있음)이 접속하고, 8

만명이 6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하면 이득’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와 관련해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더욱 정확하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

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점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 남편이 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인적공제 했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 공제·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5년치 소득세 250만원을 환급 신청한 식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업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게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2월 소비시장 한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광공업 생산지수 광주↑·전남↓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모두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전년 동월보다 대폭 감소하는 등 소비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광주는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개선됐지만, 전남은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

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지난 2월 기준 82.9로 전년 동월(100.0) 대비 17.1% 하락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각각 25.4%, 10.6%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27.0%), 신발·가방(-24.1%), 화장품(-17.9%) 등의 소비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4에서 70.4로 22.1% 떨어졌다. 지난 2023년 2월 기록했던 77.5보다 낮은 수치다.

상품군별로 화장품(-32.1%), 의복(-26.0%),

음·식료품(-22.9%)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2월 중 소비가 전년 동월보다 대폭 줄어든 요인으로 ‘이른 설’이 꼽힌다. 올해는 소비 대목인 설 연휴가 1월 말에 있었지만, 2월 중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회복이 엇갈렸다. 광주시 2월 중 광공업 생산지수는 127.2로 1년전보다 14.2% 증가했다. 담배(78.3%), 자동차(15.7%), 전기장비(15.5%)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는 93.9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다. 지역 주력 산업인 기계장비(-34.9%)를 비롯해 1차 금속(-15.9%) 등이 전반적인 생산 감소를 견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전국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광주도 지속 증가세

광주 416가구·전남 2401가구

전국에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돌파했다. 광주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 다 짓고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 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래 최대치다.

2월 광주지역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17가구 늘어난 416가구였다. 2023년 12월(221가구)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전남의 경우 악성 미분양 물량은 2401가구로 전월 대비 44가구 줄었지만, 2023년 12월(1212가구)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8~2011년 4만~5만가구를 정점으로, 2022년 5월 6800여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0월 1만가구를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용량 줄여 품수 인상...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9개 상품 적발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용량을 줄인 9개 상품이 적발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판매가격 대신 슬쩍 상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 행위를 뜻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분기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등에서 45만여건의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조사 결과 총 9개 상품이 용량이 줄어들고, 단위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상품은 모두 식품군에 속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 해외 수입 상품은 5개였다. 이 중 용량 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은 6개,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국내 상품으로는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기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 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앤바이오텍)’ 등이 있다. 초콜릿류는 지난해 8월 일괄적으로 14.3%의

용량을 줄였다. 이어 호박엿은 지난해 10월 6.7%, 아로니아 분말은 지난해 11월 25%의 용량을 줄였다.

수입 상품에서는 블랙펀치 미니바(-7.6%), 아몬드&헤이즐넛(-9.2%), 미니바 말기(-9.4%)의 용량이 줄었다. 이 밖에 위토스 골든 초콜릿이 20%, 세이가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22% 내용물을 줄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상품들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변경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미국 상호관세·공매도 악재...코스피 ‘와르르’

3% 급락하며 2480대 턱걸이

외국인 8개월째 코스피 순매도

코스피가 미국 상호관세 공포, 미국 경기침체 우려, 공매도 재개 경계감 등 3대 악재 여파로 3% 급락하며 2480대로 후퇴했다.

지난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6.86포인트(3.0%) 하락한 2481.12로 마감해 지난달 4일 이후 두 달 만에 2480대로 밀려났다.

지수는 전장 대비 44.54포인트(1.74%) 내린 2513.44로 출발한 뒤 하락세가 강해졌고 한때 2479.4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5753억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99억원, 6672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954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현·선물 순매도 규모는 약 2조5700억원으로 지난달 28일(3조2158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째 코스피를 순매도했다. 이는 2007년 6월~2008년 4월(11개월 연속) 이후 최장 기록이다.

오후 3시 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4원 오른 1472.9원을 기록, 주간 거래 증가 기준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삼성전자(-3.99%), SK하이닉스(-4.32%) 등 반도체주와 현대차(-3.8%), 기아(-3.15%), 현대모비스(-2.62%) 등 자동차주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수출주가 일제히 악세장을 보였다.

대차거래잔고 비중이 커 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제기된 포스코퓨처엠(-6.38%), 엘앤에프(-7.57%), LG에너지솔루션(-6.04%) 등 이차전지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3.34%), 셀트리온(-

4.57%), 유한양행(-4.21%) 등 바이오주의 낙폭도 컸다. 한화에너지스페이스(-0.48%), 현대로템(3.24%), LG넥스원(2.06%) 등 방산주와 HD현대중공업(-0.36%), 한화오션(0.15%) 등 조선주는 비교적 선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91포인트(3.01%) 내린 672.85로 장을 마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1.12 (-76.86)
↓ 코스닥	672.85 (-20.91)
↓ 금리 (국고채 39년)	2.569 (-0.060)
↑ 환율 (USD)	1472.05 (+5.55)
(오후 4시 57분 기준)	

광주은행, 목포해양대와 해양인재발굴 협약



광주은행은 지난 31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해양인재 발굴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인재 발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지역 발전 혁신을 위한 공동 대응, 인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공동전략 기획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해양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우수한 해양 인재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파워리버캡 플러스’ 출시

밀크씨슬 등 멀티비타민 11종

짙은 회색 등 지친 현대인의 간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을 건강 기능 식품이 나왔다.

(주)그린알로에는 밀크씨슬 추출물 등 자연 유래 소재를 복합적으로 함유한 ‘그린파워리버캡 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린파워리버캡 플러스는 밀크씨슬 추출물과 건초 효모에서 추출한 자연 유래 멀티비타민, 미네랄 등 11종을 함유한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밀크씨슬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 효과적인 표고버섯 균사체,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레몬밤, 복분자, 새싹보리, 민들레 등 부원료를 함유한 것도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크씨슬은 2000여년 전부터 유럽에서 간 질환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천연 소재로 알려져 있다.

정광숙 그린알로에 회장은 “팬데믹 이후 경기 침



체의 상황이지만 ‘제품의 경쟁력이 곧 마케팅 전략이다’는 판단에 신제품 연구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은 간의 주요 기능인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돕고 간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자연 유래 성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주원료로 함유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오늘 DJ센터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과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정위의 하도급법 유용행위 금지규정,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별기업별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1일 광주를 시작으로, 6월 부산, 7월 대전, 9월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